

NEAR사무국 지원, '경북도의회-러 사하공화국의회 교류강화' 관련 언론스크랩

2019.11.05.(화)

번호	구분	매체명	제목	비고
1	TV	MBC	도의회, 러시아 '사하공화국'과 교류협력강화	
2	신문	경북신문	경북도의회, 러시아 사하공화국의회와 교류 강화	
3	신문	도민일보	경북도의회-러시아 사하공화국의회 협력 강화	
4	신문	경북문화신문	경북도의회, 러시아 사하공화국의회와의 전방위 협력 강화!	
5	신문	구미일보	도의회, 러시아 사하공화국의회와의 전방위 협력 강화!	
6	인터넷	아주경제	경북도의회, 러시아 사하공화국의회와 전 방위 협력 강화	
7	인터넷	뉴시스	경북도의회, 러시아 사하공화국의회와 문화·경제 교류 강화	
8	인터넷	BBS 뉴스	경북도 찾은 러시아 사하공화국의회, 알타이 뿌리 동일 '공동박물관 설립' 제안	
9	인터넷	이뉴스투데이	경북도의회, 러시아 사하공화국의회 내방 전방위 협력 강화!	
10	인터넷	위키트리	경북도의회, 러시아 사하공화국의회와 전방위 협력 강화!	
11	인터넷	브레이크뉴스	경북도의회, 러시아 사하공화국의회와 전 방위 협력 강화	
12	인터넷	시사코리아저널	경북도의회, 러시아 사하공화국의회와 전 방위 협력 강화	
13	인터넷	세계타임즈	경북도의회, 러시아 사하공화국의회와 전 방위 협력 강화!	
14	통신사	내외뉴스통신	경북도의회, 러시아 사하공화국의회와 전 방위 협력 강화!	
15	통신사	경북공보뉴스	경북도의회, 러시아 사하공화국의회와 전 방위 협력 강화!	

도의회, 러시아 '사하공화국'과 교류협력강화

NEWS
DESK



경북신문

프린트하기 닫기

경북도의회, 러시아 사하공화국의회와 교류 강화 친선 교류회서 기념품 교환 실질적 교류 협력 방안 논의

서인교 기자 / sing4302@hanmail.net 2774호 입력 : 2019년 10월 31일(목) 19:13



↑↑ 31일 러시아 사하공화국의회가 경북도의회를 공식 방문한 가운데 열린 친선 교류회에서 양 의회는 상호 기념품을 교환하고, 실질적인 교류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경북도의회가 러시아 사하공화국의회와 문화·경제 분야에서 실질적인 교류를 확대하기 위한 다양한 의견을 교환했다.

31일 러시아 사하공화국의회가 경북도의회를 공식 방문한 가운데 열린 친선 교류회에서 양 의회는 상호 기념품을 교환하고, 실질적인 교류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장경식 의장을 비롯한 경북도의원들과 사하공화국 친선교류단은 양 국가 간의 언어·문화적으로 유사한 측면이 많다면서, 양국 간의 동질적인 문화유산에 대한 공동연구, 공동박물관 건립, 경주 세계문화엑스포 참여 등 문화부문에 대한 다각적인 교류협력 방안을 논

의했다.

또 내년에 사하공화국 주관으로 개최되는 동북아자치단체연합(NEAR) 제13차 총회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 경북도의회를 초청하는 등 상호 간에 긴밀하게 협력하기로 했다.

특히, 사하공화국은 "대한민국 경북과 알타이계의 동족으로 헤어지고 만나야 정이 든다"며 "공동으로 뿌리 찾는 사업을 펼치자"고 제안했다.

동북아자치단체연합은 경제·문화 교류 등 동북아 지역 간 협력 강화를 위해 1996년에 경북도가 초대 의장국이 되어 설립된 국제 단체로 2018년부터 2020년까지 사하공화국에서 의장국을 맡고 있다.

장경식 의장은 '만파식적'을 전달하며 활발한 의정활동으로 사하공화국의 평안을 기원했고, "경북도가 한-러 포럼 개최 등 신북방정책을 선도적으로 추진하고 있다"며, 한-러수교 30주년을 앞두고 양 국가에 다양한 협력이 추진되는 시기를 잘 활용해 양 기관 간의 협력을 문화와 경제에 이르기까지 획기적으로 넓혀 나갈 것을 제안했다.

이에 사하공화국의회 친선교류단장인 지르코프 제1부의장은 야쿠트인의 전통 그릇인 '초론'을 선물하며 사하공화국과 한국이 알타이 인으로 뿌리가 동일함을 강조하고, "한국의 선덕대왕 신종인 에밀레종의 맑은 소리를 기억한다"며 맑고 깊은 에밀레종 소리처럼 사하공화국과 경상북도 간의 교류와 협력이 울려 퍼지기를 희망했다.

또 포항에 있는 동북아자치단체연합사무국의 의장국으로, 경북과의 교류협력 의향서 체결이 올해의 가장 큰 사건 중 하나라며 경북과의 친밀감을 표시했다.

한편, 러시아 사하공화국의회 친선교류단 일행은 지난달 30일부터 4일간의 일정으로 경북도의회 공식 방문, 세계문화유산인 소수서원, 봉정사, 하회마을 방문, 경주세계문화엑스포 관람, 포항 철강산업 시찰 등 경북 대표지역을 방문한다.

url : http://www.kbsm.net/default/index_view_page.php?part_idx=325&idx=259954

Copyrights ©경북신문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인쇄하기

인쇄하기 창닫기



HOME 정치 지방정가

경북도의회-러시아 사하공화국의회 협력 강화

공동박물관 개설 등 문화와 경제로 교류 확대 제안

김시환 기자 | 승인 2019.10.31 17:05



(경북=김시환 기자) 경상북도의회(의장 장경식)는 러시아 사하공화국의회와 문화·경제 분야에서 실질적인 교류를 확대하기 위한 다양한 의견을 교환했다고 밝혔다.

10월 31일 러시아 사하공화국의회가 경상북도의회를 공식 방문한 가운데 열린 친선 교류회에서 양 의회는 상호 기념품을 교환하고, 실질적인 교류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장경식 의장을 비롯한 경북도의원들과 사하공화국 친선교류단은 양 국가 간의 언어·문화적으로 유사한 측면이 많다면서, 양국 간의 동질적인 문화유산에 대한 공동연구, 공동

박물관 건립, 경주 세계문화엑스포 참여 등 문화부문에 대한 다각적인 교류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또한, 내년에 사하공화국 주관으로 개최되는 동북아자치단체연합(NEAR) 제13차 총회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 경북도의원을 초청하는 등 상호 간에 긴밀하게 협력하기로 했다.

동북아자치단체연합은 경제·문화 교류 등 동북아 지역 간 협력 강화를 위해 1996년에 경상북도가 초대 의장국이 되어 설립된 국제 단체로 2018년부터 2020년까지 사하공화국에서 의장국을 맡고 있다.

이날 장경식 의장은 '만파식적'을 전달하며 활발한 의정활동으로 사하공화국의 평안을 기원했고, "경상북도가 한-러 포럼 개최 등 신북방정책을 선도적으로 추진하고 있다"며, 한-러수교 30주년을 앞두고 양 국가에 다양한 협력이 추진되는 시기를 잘 활용해 양 기관 간의 협력을 문화와 경제에 이르기까지 획기적으로 넓혀 나갈 것을 제안했다.

이에 사하공화국의회 친선교류단장인 지르코프 제1부 의장은 야쿠트인의 전통 그릇인 '초론'을 선물하며 사하공화국과 한국이 알타이 인으로 뿌리가 동일함을 강조하고, "한국의 선덕대왕 신종인 에밀레종의 맑은 소리를 기억한다"며 맑고 깊은 에밀레종 소리처럼 사하공화국과 경상북도 간의 교류와 협력이 울려 퍼지기를 희망했다.

또한, 포항에 있는 동북아자치단체연합사무국의 의장국으로, 경북과의 교류협력 의향서 체결이 올해의 가장 큰 사건 중 하나라며 경북과의 친밀감을 표시했다.

한편, 러시아 사하공화국의회 친선교류단 일행은 10월 30일부터 4일간의 일정으로 경상북도의회 공식 방문, 세계문화유산인 소수서원, 봉정사, 하회마을 방문, 경주세계문화엑스포 관람, 포항 철강산업 시찰 등 경북 대표지역을 방문한다.

김시환 기자 rlatlghks09@naver.com

<저작권자 © 도민일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인쇄하기

경북도의회, 러시아 사하공화국의회와의 전방위 협력 강화!

2019년 10월 31일 [경북문화신문]

경상북도의회(의장 장경식)는 러시아 사하공화국의회와 문화·경제 분야에서 실질적인 교류를 확대하기 위한 다양한 의견을 교환했다고 밝혔다.



© 경북문화신문

31일 러시아 사하공화국의회가 경상북도의회를 공식 방문한 가운데 열린 친선 교류회에서 양 의회는 상호 기념품을 교환하고, 실질적인 교류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장경식 의장을 비롯한 경북도의원들과 사하공화국 친선교류단은 양 국가 간의 언어·문화적으로 유사한 측면이 많다면서, 양국 간의 동질적인 문화유산에 대한 공동연구, 공동박물관 건립, 경주 세계문화엑스포 참여 등 문화부문에 대한 다각적인 교류협력 방안도 논의했다.

또한, 내년에 사하공화국 주관으로 개최되는 동북아자치단체연합(NEAR) 제13차 총회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 경북도의원을 초청하는 등 상호 간에 긴밀하게 협력하기로 했다.

동북아자치단체연합은 경제·문화 교류 등 동북아 지역 간 협력 강화를 위해 1996년에 경상북도가 초대 의장국이 되어 설립된 국제 단체로 2018년부터 2020년까지 사하공화국에서 의장국을 맡고 있다.



© 경북문화신문

이날 장경식 의장은 ‘만파식적’을 전달하며 활발한 의정활동으로 사하공화국의 평안을 기원했고, “경상북도가 한-러 포럼 개최 등 신북방정책을 선도적으로 추진하고 있다”며, 한-러수교 30주년을 앞두고 양 국가에 다양한 협력이 추진되는 시기를 잘 활용해 양 기관 간의 협력을 문화와 경제에 이르기까지 획기적으로 넓혀 나갈 것을 제안했다.

이에 사하공화국의회 친선교류단장인 지르코프 제1부의장은 야쿠트인의 전통 그릇인 ‘초론’을 선물하며 사하공화국과 한국이 알타이 인으로 뿌리가 동일함을 강조하고, “한국의 선덕대왕 신종인 에밀레종의 맑은 소리를 기억한다”며 맑고 깊은 에밀레종 소리처럼 사하공화국과 경상북도 간의 교류와 협력이 울려 퍼지기를 희망했다.

또한, 포항에 있는 동북아자치단체연합사무국의 의장국으로, 경북과의 교류협력 의향서 체결이 올해의 가장 큰 사건 중 하나라며 경북과의 친밀감을 표시했다.



© 경북문화신문

한편, 러시아 사하공화국의회 친선교류단 일행은 30일부터 4일간의 일정으로 경상북도의회 공식 방문, 세계문화유산인 소수서원, 봉정사, 하회마을 방문, 경주세계문화엑스포 관람, 포항 철강산업 시찰 등 경북 대표지역을 방문한다.

임호성 기자

- Copyrights ©경북문화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경북문화신문 기사목록 | 기사제공 : 경북문화신문

구미일보

도의회, 러시아 사하공화국의회와의 전방위 협력 강화!

- 공동박물관 개설 등 문화와 경제로 교류 확대 제안 -
- 31일 도의회 공식방문.. 상호발전과 교류확대 의견교환 -

이윤정 기자 kgnews@hanmail.net

등록 2019.11.01 01:19:12



경상북도의회(의장 장경식)는 러시아 사하공화국의회와 문화·경제 분야에서 실질적인 교류를 확대하기 위한 다양한 의견을 교환했다고 밝혔다.

10월 31일 러시아 사하공화국의회가 경상북도의회를 공식 방문한 가운데 열린 친선 교류회에서 양 의회는 상호 기념품을 교환하고, 실질적인 교류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장경식 의장을 비롯한 경북도의원들과 사하공화국 친선교류단은 양 국가 간의 언어·문화적으로 유사한 측면이 많다면서, 양국 간의 동질적인 문화유산에 대한 공동연구, 공동박물관 건립, 경주 세계문화엑스포 참여 등 문화부문에 대한 다각적인 교류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구미일보

또한, 내년에 사하공화국 주관으로 개최되는 동북아자치단체연합(NEAR) 제13차 총회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 경북도의원을 초청하는 등 상호 간에 긴밀하게 협력하기로 했다.

동북아자치단체연합은 경제·문화 교류 등 동북아 지역 간 협력 강화를 위해 1996년에 경상북도가 초대 의장국이 되어 설립된 국제 단체로 2018년부터 2020년까지 사하공화국에서 의장국을 맡고 있다.

이날 장경식 의장은 ‘만파식적’을 전달하며 활발한 의정활동으로 사하공화국의 평안을 기원했고, “경상북도가 한-러 포럼 개최 등 신북방정책을 선도적으로 추진하고 있다”며, 한-러수교 30주년을 앞두고 양 국간에 다양한 협력이 추진되는 시기를 잘 활용해 양 기관 간의 협력을 문화와 경제에 이르기까지 획기적으로 넓혀 나갈 것을 제안했다.

이에 사하공화국의회 친선교류단장인 지르코프 제1부의장은 야쿠트인의 전통 그릇인 ‘초론’을 선물하며 사하공화국과 한국이 알타이 인으로 뿌리가 동일함을 강조하고, “한국의 선덕대왕 신종인 에밀레종의 맑은 소리를 기억한다”며 맑고 깊은 에밀레종 소리처럼 사하공화국과 경상북도 간의 교류와 협력이 울려 퍼지기를 희망했다.

또한, 포항에 있는 동북아자치단체연합사무국의 의장국으로, 경북과의 교류협력 의향서 체결이 올해의 가장 큰 사건 중 하나라며 경북과의 친밀감을 표시했다.

한편, 러시아 사하공화국의회 친선교류단 일행은 10월 30일부터 4일간의 일정으로 경상북도의회 공식 방문, 세계문화유산인 소수서원, 봉정사, 하회마을 방문, 경주세계문화엑스포 관람, 포항 철강산업 시찰 등 경북 대표지역을 방문한다.

< 저작권자 © 구미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 구미일보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으며,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을 금합니다.

경북도의회, 러시아 사하공화국의회와 전 방위 협력 강화

공동박물관 개설 등 문화와 경제로 교류 확대 제안

(안동) 최주호 기자 (cjh@ajunews.com) | 입력 : 2019-10-31 05:40 | 수정 : 2019-10-31 05:40



31일, 러시아 사하공화국 친선교류단이 경북도의회를 공식내방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경상북도의회 제공]

경상북도의회는 러시아 사하공화국의회와 문화·경제 분야에서 실질적인 교류를 확대하기 위한 다양한 의견을 교환했다고 31일 밝혔다.

러시아 사하공화국의회는 이날 경상북도의회를 공식 방문한 가운데 열린 친선 교류회에서 상호 기념품을 교환하고, 실질적인 교류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장경식 의장을 비롯한 경북도의원들과 사하공화국 친선교류단은 양 국가 간의 언어·

문화적으로 유사한 측면이 많다면서, 양국 간의 동질적인 문화유산에 대한 공동연구, 공동박물관 건립, 경주세계문화엑스포 참여 등 문화부문에 대한 다각적인 교류협력 방안을 협의했다.

또한, 내년에 사하공화국 주관으로 개최되는 동북아자치단체연합(NEAR) 제13차 총회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 경북도위원을 초청하는 등 상호 간에 긴밀하게 협력하기로 했다.

동북아자치단체연합은 경제·문화 교류 등 동북아 지역 간 협력 강화를 위해 1996년에 경상북도가 초대 의장국이 되어 설립된 국제단체로, 2018년부터 2020년까지 사하공화국에서 의장국을 맡고 있다.

이날 장경식 의장은 '만파식적'을 전달하며 활발한 의정활동으로 사하공화국의 평안을 기원했고, "경상북도가 한-러 포럼 개최 등 신북방정책을 선도적으로 추진하고 있다"며 한-러수교 30주년을 앞두고 양국 간에 다양한 협력이 추진되는 시기를 잘 활용해 양 기관 간의 협력을 문화와 경제에 이르기까지 획기적으로 넓혀 나갈 것을 제안했다.

이에 사하공화국의회 친선교류단장인 지르코프 제1부의장은 야쿠트인의 전통 그릇인 '초론'을 선물하며 사하공화국과 한국이 알타이 인으로 뿌리가 동일함을 강조하고, "한국의 선덕대왕 신종인 에밀레종의 맑은 소리를 기억한다"며 맑고 깊은 에밀레종 소리처럼 사하공화국과 경상북도 간의 교류와 협력이 울려 퍼지기를 희망했다.

또한, 포항에 있는 동북아자치단체연합사무국의 의장국으로, 경북과의 교류협력의 향서 체결이 올해의 가장 큰 사건 중 하나라며, 경북과의 친밀감을 표시했다.

한편, 러시아 사하공화국의회 친선교류단 일행은 10월 30일부터 4일간의 일정으로 경상북도의회 공식 방문, 세계문화유산인 소수서원, 봉정사, 하회마을 방문, 경주세계문화엑스포 관람, 포항 철강 산업 시찰 등 경북 대표지역을 방문한다.

(안동) 최주호 기자(cjh@ajunews.com)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경북도의회, 러시아 사하공화국의회와 문화·경제 교류 강화

박준 기자 | june@newsis.com

등록 2019-10-31 15:25:50



러시아 사하공화국 친선교류단 경북도의회 방문

【안동=뉴스시스】박준 기자 = 경북도의회는 러시아 사하공화국의회와 문화·경제 분야에서 실질적인 교류를 확대하기 위한 다양한 의견을 교환했다고 31일 밝혔다.

러시아 사하공화국의회가 경북도의회를 공식 방문한 가운데 열린 친선 교류회에서 양 의회는 상호 기념품을 교환하고 실질적인 교류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장경식 의장을 비롯한 경북도의원들과 사하공화국 친선교류단은 양 국가 간의 언어·문화적으로 유사한 측면이 많으며 양국 간의 동질적인 문화유산에 대한 공동연구, 공동박물관 건립, 경주 세계문화엑스포 참여 등 문화부문에 대한 다각적인 교류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또 내년에 사하공화국 주관으로 개최되는 동북아자치단체연합(NEAR) 제13차 총회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 경북도의원을 초청하는 등 상호 간에 긴밀하게 협력하기로 했다.

동북아자치단체연합은 경제·문화 교류 등 동북아 지역 간 협력 강화를 위해 1996년에 경북도가 초대 의장국이 돼 설립된 국제 단체로 2018년부터 오는 2020년까지 사하공화국에서 의장국을 맡고 있다.

장경식 의장은 "경북도가 한-러 포럼 개최 등 신북방정책을 선도적으로 추진하고 있다"며 "한-러수교 30주년을 앞두고 양 국가에 다양한 협력이 추진되는 시기를 잘 활용해 양 기관 간의 협력을 문화와 경제에 이르기까지 획기적으로 넓혀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사하공화국의회 친선교류단장인 지르코프 제1부의장은 "한국의 선덕대왕 신종인 에밀레종의 맑은 소리를 기억한다"며 "맑고 깊은 에밀레종 소리처럼 사하공화국과 경상북도 간의 교류와 협력이 울려 퍼지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러시아 사하공화국의회 친선교류단 일행은 경북도의회 공식 방문 및 세계문화유산인 소수서원, 봉정사, 하회마을 방문, 경주세계문화엑스포 관람, 포항 철강산업 시찰 등 경북 대표지역을 방문한다.

june@newsis.com

Copyright © NEWSIS.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인쇄하기

인쇄하기 창닫기

홈 > 뉴스 > 전국

경북도 찾은 러시아 사하공화국의회, 알타이 뿌리 동일 '공동박물관 설립' 제안

2019년 10월 31일 (목) 16:03:04

김종렬 기자 ✉ kjr21c@naver.com



▲ 31일 경북도의회를 공식 방문한 러시아 사하공화국의회 대표단이 도의회 전정에서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경북도의회 제공

경북도의회를 공식 방문한 러시아 사하공화국의회 대표단이 오늘(31일) 도의회에서 열린 친선교류회에서 알타이 뿌리를 찾는 '공동박물관' 건립을 제안했습니다.

사하공화국의회 친선교류단장인 지르코프 제1부회장은 “야쿠트인과 한국인의 뿌리는 알타이에서 왔고 같은 알타이 언어로 수세기를 이어왔다”며 “역사적 사건을 복원하고 계승하기 위해 공동박물관 설립을 제안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내년에 사하공화국 주관으로 개최되는 동북아자치단체연합(NEAR) 제13차 총회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 경북도의회도 참석도 요청했습니다.

동북아자치단체연합은 경제·문화 교류 등 동북아 지역 간 협력 강화를 위해 1996년에 경북도가 초대 의장국이 돼 설립된 국제 단체로 2018년부터 2020년까지 사하공화국이 의장국을 맡고 있습니다.

경북도의회 장경식 의장과 사하공화국의회 지르코프 제1부의장은 이날 ‘만파식적’과 야큐트인의 전통 그릇인 ‘초론(Чорон)’을 상호 전달하며 양 의회 간의 긴밀한 협력과 양 국의 평화와 안녕을 기원했습니다.

장경식 의장은 환영사를 통해 “경상북도가 한-러 포럼 개최 등 신북방정책을 선도적으로 추진하고 있다”며 “한-러수교 30주년을 앞두고 양 국간에 다양한 협력이 추진되는 시기를 잘 활용해 양 기관 간의 협력을 문화와 경제에 이르기까지 획기적으로 넓혀 나가자”고 말했습니다.

지르코프 제1부의장은 답사를 통해 “에밀레종(선덕대왕 신종)의 소리가를 좋게 들리더라”며 “맑고 깊은 에밀레종 소리처럼 사하공화국과 경상북도 간의 교류와 협력이 좋은소리 처럼 전해졌으면 좋겠다”고 희망했습니다.

어제(30일) 경북도를 방문해 영주 소수서원과 세계유산 안동 봉정사, 하회마을을 둘러본 러시아 사하공화국의회 친선교류단 일행은 경주세계문화엑스포 관람, 포항 철강산업 시찰 등 역사문화 유적과 산업시설을 방문하며 경북에서의 일정을 마무리 합니다.

한편, 이날 경북도의회와 러시아 사하공화국의회와의 친선교류회에는 경북도의회에서 장경식 의장을 비롯해 독도수호특별위원회 김성진 위원장, 미세먼지대책특별위원회 김진욱 위원장·박태춘 부위원장, 김준열 정책연구위원회 부위원장, 민인기 경북도의회 사무처장, 김한수 의사담당관, 박충근 입법정책관, 전종근 총무담당관 등이 참석했습니다.

© 불교방송(<http://news.bbsi.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저작권문의

인쇄하기

이뉴스투데이

HOME > 전국 > 경북취재본부

경북도의회, 러시아 사하공화국의회 내방 전방위 협력 강화!

남동락기자 승인 2019.10.31 16:15

공동박물관 개설 등 문화와 경제로 교류 확대 제안
31일 도의회 공식방문.. 상호발전과 교류확대 의견교환



러시아 사하공화국, 경북도의회 공식 방문[사진=경북도의회]

[이뉴스투데이 경북취재본부 남동락 기자]경상북도의회(의장 장경식)는 러시아 사하공화국의회와 문화·경제 분야에서 실질적인 교류를 확대하기 위한 다양한 의견을 교환했다고 밝혔다.

10월 31일 러시아 사하공화국의회가 경상북도의회를 공식 방문한 가운데 열린 친선 교류회에서 양 의회는 상호 기념품을 교환하고, 실질적인 교류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장경식 의장을 비롯한 경북도의원들과 사하공화국 친선교류단은 양 국가 간의 언어·문화적으로 유사한 측면이 많다면서, 양국 간의 동질적인 문화유산에 대한 공동연구, 공동박물관 건립, 경주 세계문화엑스포 참여 등 문화부문에 대한 다각적인 교류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또한, 내년에 사하공화국 주관으로 개최되는 동북아자치단체연합(NEAR) 제13차 총회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 경북도위원을 초청하는 등 상호 간에 긴밀하게 협력하기로 했다.

동북아자치단체연합은 경제·문화 교류 등 동북아 지역 간 협력 강화를 위해 1996년에 경상북도가 초대 의장국이 되어 설립된 국제 단체로 2018년부터 2020년까지 사하공화국에서 의장국을 맡고 있다.

이날 장경식 의장은 ‘만파식적’을 전달하며 활발한 의정활동으로 사하공화국의 평안을 기원했고, “경상북도가 한-러 포럼 개최 등 신북방정책을 선도적으로 추진하고 있다”며, 한-러수교 30주년을 앞두고 양 국가 간에 다양한 협력이 추진되는 시기를 잘 활용해 양 기관 간의 협력을 문화와 경제에 이르기까지 획기적으로 넓혀 나갈 것을 제안했다.

이에 사하공화국의회 친선교류단장인 지르코프 제1부 의장은 야쿠트인의 전통 그릇인 ‘초론’을 선물하며 사하공화국과 한국이 알타이 인으로 뿌리가 동일함을 강조하고, “한국의 선덕대왕 신종인 에밀레종의 맑은 소리를 기억한다”며 맑고 깊은 에밀레종 소리처럼 사하공화국과 경상북도 간의 교류와 협력이 울려 퍼지기를 희망했다.

또한, 포항에 있는 동북아자치단체연합사무국의 의장국으로, 경북과의 교류협력의 향서 체결이 올해의 가장 큰 사건 중 하나라며 경북과의 친밀감을 표시했다.

한편, 러시아 사하공화국의회 친선교류단 일행은 10월 30일부터 4일간의 일정으로 경상북도의회 공식 방문, 세계문화유산인 소수서원, 봉정사, 하회마을 방문, 경주세계문화엑스포 관람, 포항 철강산업 시찰 등 경북 대표지역을 방문한다.

저작권자 © 이뉴스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남동락 기자

경북도의회, 러시아 사하공화국의회와 전방위 협력 강화!

2019-11-01 19:54 정준기 기자 dg9004@wikitree.co.kr



2019.10.31 러시아 사하공화국 친선교류단 경북도의회 공식내방 / 경북도의회

경북도의회는 지난달 31일 공식방문한 러시아 사하공화국의회 친선교류단과 양의회간 실질적인 교류 협력에 관한 다양한 의견을 교환했다.

장경식 의장을 비롯한 경북도의원들과 사하공화국 친선교류단은 양 국가 간의 언어·문화적으로 유사한 측면이 많다면서, 양국 간의 동질적인 문화유산에 대한 공동연구, 공동박물관 건립, 경주 세계문화엑스포 참여 등 문화부문에 대한 다각적인 교류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또한, 내년에 사하공화국 주관으로 개최되는 동북아자치단체연합(NEAR) 제13차 총회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 경북도의원을 초청하는 등 상호 간에 긴밀하게 협력하기로 했다.

동북아자치단체연합은 경제·문화 교류 등 동북아 지역 간 협력 강화를 위해 1996년에 경상북도가 초대 의장국이 되어 설립된 국제 단체로 2018년부터 2020년까지 사하공화국에서 의장국을 맡고 있다.

이날 장경식 의장은 '만파식적'을 전달하며 활발한 의정활동으로 사하공화국의 평안을 기원했고, "경상북도가 한-러 포럼 개최 등 신북방정책을 선도적으로 추진하고 있다"며, 한-러수교 30주년을 앞두고 양국간에 다양한 협력이 추진되는 시기를 잘 활용해 양 기관 간의 협력을 문화와 경제에 이르기까지 획기적으로 넓혀 나갈 것을 제안했다.

이에 사하공화국의회 친선교류단장인 지르코프 제1부의장은 야쿠트인의 전통 그릇인 '초론'을 선물하며 사하공화국과 한국이 알타이 인으로 뿌리가 동일함을 강조하고, "한국의 선덕대왕 신종인 에밀레종의 맑은 소리를 기억한다"며 맑고 깊은 에밀레종 소리처럼 사하공화국과 경상북도 간의 교류와 협력이 올려 퍼지기를 희망했다.

또한, 포항에 있는 동북아자치단체연합사무국의 의장국으로, 경북과의 교류협력 의향서 체결이 올해의 가장 큰 사건 중 하나라며 경북과의 친밀감을 표시했다.

한편, 러시아 사하공화국의회 친선교류단 일행은 10월 30일부터 4일간의 일정으로 경상북도의회 공식 방문, 세계문화유산인 소수서원, 봉정사, 하회마을 방문, 경주세계문화엑스포 관람, 포항 철강산업 시찰 등 경북 대표지역을 방문한다.

키워드 | 경상북도의회 친선교류단,러시아 사하공화국의회,동북아자치단체연합 친선교류단

위키트리 뉴스 스토리텔링 가이드라인을 엄격히 준수하고 있습니다.

이 글의 저작권은 필자에게 있으며, (주)소셜뉴스는 이 글에 대한 재배포 권한을 갖습니다.

© Social News Co., Ltd. All Right Reserved.

브레이크뉴스

BreakNews

경북도의회, 러시아 사하공화국의회와 전방위 협력 강화

이성현 기자 newsall@hanmail.net

【브레이크뉴스 경북】이성현 기자= 경상북도의회(의장 장경식)는 러시아 사하공화국의회와 문화·경제 분야에서 실질적인 교류를 확대하기 위한 다양한 의견을 교환했다고 31일 밝혔다.



▲ 러시아 사하공화국 친선교류단 경북도의회 공식내방 (C) 경북도의회

이날러시아 사하공화국의회가 경상북도의회를 공식 방문한 가운데열린 친선 교류회에서 양 의회는 상호 기념품을 교환하고, 실질적인 교류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장경식 의장을 비롯한 경북도의원들과 사하공화국 친선교류단은 양 국가 간의 언어·문화적으로 유사한 측면이 많다면서, 양국 간의 동질적인 문화유산에 대한 공동연구, 공동

박물관 건립, 경주 세계문화엑스포참여 등 문화부문에 대한 다각적인 교류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또한, 내년에 사하공화국 주관으로 개최되는 동북아자치단체연합(NEAR) 제13차 총회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 경북도의회를 초청하는 등 상호 간에 긴밀하게 협력하기로 했다.

동북아자치단체연합은 경제·문화 교류 등 동북아 지역 간 협력 강화를 위해 1996년에 경상북도가 초대 의장국이 되어 설립된 국제 단체로 2018년부터 2020년까지 사하공화국에서 의장국을 맡고 있다.

이날 장경식 의장은 '만파식적'을 전달하며 활발한 의정활동으로 사하공화국의 평안을 기원했고, "경상북도가 한-러 포럼 개최 등 신북방정책을 선도적으로 추진하고 있다"며, 한-러수교 30주년을 앞두고 양 국간에 다양한 협력이 추진되는 시기를 잘 활용해 양 기관 간의 협력을 문화와 경제에 이르기까지 획기적으로 넓혀 나갈 것을 제안했다.

이에 사하공화국의회 친선교류단장인 지르코프 제1부의장은 야쿠트인의 전통 그릇인 '초론'을 선물하며 사하공화국과 한국이 알타이 인으로 뿌리가 동일함을 강조하고, "한국의 선덕대왕 신종인 에밀레종의 맑은소리를 기억한다"며 맑고 깊은 에밀레종 소리처럼 사하공화국과 경상북도 간의 교류와 협력이 울려 퍼지기를 희망했다.

또한, 포항에 있는 동북아자치단체연합사무국의 의장국으로, 경북과의 교류협력 의향서 체결이 올해의 가장 큰 사건 중 하나라며 경북과의 친밀감을 표시했다.

한편, 러시아 사하공화국의회 친선교류단 일행은 10월 30일부터 4일간의 일정으로 경상북도의회 공식 방문, 세계문화유산인 소수서원, 봉정사, 하회마을 방문, 경주세계문화엑스포 관람, 포항 철강산업 시찰 등 경북 대표지역을 방문한다.

원본 기사 보기:[브레이크뉴스 대구경북](#)

기사입력시간 : 2019년 10월31일 [18:19:00]

인쇄하기

인쇄하기 창닫기



HOME 전국

경북도의회-러 사하공화국의회, 전방위 협력 강화

31일 도의회 공식방문... 상호발전과 교류확대 의견교환

김연학 기자 승인 2019.10.31 17:34



[시사코리아저널 김연학 기자] 경상북도의회(의장 장경식)는 러시아 사하공화국의회와 문화경제 분야에서 실질적인 교류를 확대하기 위한 다양한 의견을 교환했다고 밝혔다.

10월 31일 러시아 사하공화국의회가 경상북도의회를 공식 방문한 가운데 열린 친선 교류회에서 양 의회는 상호 기념품을 교환하고, 실질적인 교류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장경식 의장을 비롯한 경북도의원들과 사하공화국 친선교류단은 양 국가 간의 언어·문화적으로 유사한 측면이 많다면서, 양국 간의 동질적인 문화유산에 대한 공동연구, 공동박물관 건립, 경주 세계문화엑스포 참여 등 문화부문에 대한 다각적인 교류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또한, 내년에 사하공화국 주관으로 개최되는 동북아자치단체연합(NEAR) 제13차 총회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 경북도의원을 초청하는 등 상호 간에 긴밀하게 협력하기로 했다.

동북아자치단체연합은 경제·문화 교류 등 동북아 지역 간 협력 강화를 위해 1996년에 경상북도가 초대 의장국이 되어 설립된 국제 단체로 2018년부터 2020년까지 사하공화국에서 의장국을 맡고 있다.

이날 장경식 의장은 '만파식적'을 전달하며 활발한 의정활동으로 사하공화국의 평안을 기원했고, "경상북도가 한-러 포럼 개최 등 신북방정책을 선도적으로 추진하고 있다"며, 한-러수교 30주년을 앞두고 양 국간에 다양한 협력이 추진되는 시기를 잘 활용해 양 기관 간의 협력을 문화와 경제에 이르기까지 획기적으로 넓혀 나갈 것을 제안했다.

이에 사하공화국의회 친선교류단장인 지르코프 제1부 의장은 야쿠트인의 전통 그릇인 '초론'을 선물하며 사하공화국과 한국이 알타이 인으로 뿌리가 동일함을 강조하고, "한국의 선덕대왕 신종인 에밀레종의 맑은 소리를 기억한다"며 맑고 깊은 에밀레종 소리처럼 사하공화국과 경상북도 간의 교류와 협력이 울려 퍼지기를 희망했다.

또한, 포항에 있는 동북아자치단체연합사무국의 의장국으로, 경북과의 교류협력의 향서 체결이 올해의 가장 큰 사건 중 하나라며 경북과의 친밀감을 표시했다.

한편, 러시아 사하공화국의회 친선교류단 일행은 10월 30일부터 4일간의 일정으로 경상북도의회 공식 방문, 세계문화유산인 소수서원, 봉정사, 하회마을 방문, 경주 세계문화엑스포 관람, 포항 철강산업 시찰 등 경북 대표지역을 방문한다.

김연학 기자 dusgkr0808@hanmail.net

<저작권자 © e시사코리아저널,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인쇄하기



- 공동박물관 개설 등 문화와 경제로 교류 확대 제안 -
- 31일 도의회 공식방문.. 상호발전과 교류확대 의견교환 -

도의회, 러시아 사하공화국의회와의 전방위 협력 강화!

이창재 기자 news@thesegye.com | 2019-11-01 01:27:06





[경북=세계타임즈 이창재 기자] 경상북도의회(의장 장경식)는 러시아 사하공화국의회와 문화·경제 분야에서 실질적인 교류를 확대하기 위한 다양한 의견을 교환했다고 밝혔다.

10월 31일 러시아 사하공화국의회가 경상북도의회를 공식 방문한 가운데 열린 친선 교류회에서 양 의회는 상호 기념품을 교환하고, 실질적인 교류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장경식 의장을 비롯한 경북도의원들과 사하공화국 친선교류단은 양 국가 간의 언어·문화적으로 유사한 측면이 많으면서, 양국 간의 동질적인 문화유산에 대한 공동연구, 공동박물관 건립, 경주 세계문화엑스포 참여 등 문화부문에 대한 다각적인 교류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또한, 내년에 사하공화국 주관으로 개최되는 동북아자치단체연합(NEAR) 제13차 총회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 경북도의원을 초청하는 등 상호 간에 긴밀하게 협력하기로 했다.

동북아자치단체연합은 경제·문화 교류 등 동북아 지역 간 협력 강화를 위해 1996년에 경상북도가 초대 의장국이 되어 설립된 국제 단체로 2018년부터 2020년까지 사하공화국에서 의장국을 맡고 있다.

이날 장경식 의장은 '만파식적'을 전달하며 활발한 의정활동으로 사하공화국의 평안을 기원했고, "경상북도가 한-러 포럼 개최 등 신북방정책을 선도적으로 추진하고 있다"며, 한-러수교 30주년을 앞두고 양 국가에 다양한 협력이 추진되는 시기를 잘 활용해 양 기관 간의 협력을 문화와 경제에 이르기까지 획기적으로 넓혀 나갈 것을 제안했다.

이에 사하공화국의회 친선교류단장인 지르코프 제1부 의장은 야쿠트인의 전통 그릇인 '초론'을 선물하며 사하공화국과 한국이 알타이 인으로 뿌리가 동일함을 강조하고, "한국의 선덕대왕 신종인 에밀레종의 맑은 소리를 기억한다"며 맑고 깊은 에밀레종 소리처럼 사하공화국과 경상북도 간의 교류와 협력이 울려 퍼지기를 희망했다.

또한, 포항에 있는 동북아자치단체연합사무국의 의장국으로, 경북과의 교류협력 의향서 체결이 올해의 가장 큰 사건 중 하나라며 경북과의 친밀감을 표시했다.

한편, 러시아 사하공화국의회 친선교류단 일행은 10월 30일부터 4일간의 일정으로 경상북도의회 공식 방문, 세계문화유산인 소수서원, 봉정사, 하회마을 방문, 경주세계문화엑스포 관람, 포항 철강산업 시찰 등 경북 대표지역을 방문한다.

[저작권자 © 세계타임즈.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 <http://www.thesegeye.com>]



HOME > 정치 > 지역정가

경북도의회, 사하공화국의회와의 전방위 협력 강화!

김영삼 기자 | 승인 2019.11.01 06:37

공동박물관 개설 등 문화와 경제로 교류 확대 제안



▲31일 러시아 사하공화국의회 관계자들이 경북도의회를 방문해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사진제공=경북도의회)

[안동=내외뉴스통신] 김영삼 기자=경북도의회(의장 장경식)는 러시아 사하공화국의회와 문화·경제 분야에서 실질적인 교류를 확대하기 위한 다양한 의견을 교환했다고 밝혔다.

31일 러시아 사하공화국의회가 경북도의회를 공식 방문한 가운데 열린 친선 교류회에서 양 의회는 상호 기념품을 교환하고, 실질적인 교류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장경식 의장을 비롯한 경북도의원들과 사하공화국 친선교류단은 양 국가 간의 언어·문화적으로 유사한 측면이 많으며 양국 간의 동질적인 문화유산에 대한 공동연구, 공동박물관 건립, 경주 세계문화엑스포 참여 등 문화부문에 대한 다각적인 교류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또한, 내년에 사하공화국 주관으로 개최되는 동북아자치단체연합(NEAR) 제13차 총회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 경북도위원을 초청하는 등 상호 간에 긴밀하게 협력하기로 했다.

동북아자치단체연합은 경제·문화 교류 등 동북아 지역 간 협력 강화를 위해 1996년에 경상북도가 초대 의장국이 되어 설립된 국제 단체로 지난 2018년부터 다음해까지 사하공화국에서 의장국을 맡고 있다.

이날 장경식 의장은 '만파식적'을 전달하며 활발한 의정활동으로 사하공화국의 평안을 기원하고 "경북도가 한-러 포럼 개최 등 신북방정책을 선도적으로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한-러수교 30주년을 앞두고 양 국가간에 다양한 협력이 추진되는 시기를 잘 활용해 양 기관 간의 협력을 문화와 경제에 이르기까지 획기적으로 넓혀 나갈 것을 제안했다.

hn032@naver.com

저작권자 © 내외뉴스통신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김영삼 기자